

아태지역 표준화협력

아·태지역 24개국의 국가표준화기관장의 협의체인 태평양지역 표준화 총회(PASC)가 2012년 여수에서 개최된다. PASC(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는 미국, 일본, 중국 등 24개국으로 구성, 회원국 및 국제표준화기구와의 표준화 관련 협력을 위한 표준화 기관 협의체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해부터 PASC 총회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쳐온 결과, 2012년 제35차 PASC 총회 국내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아·태지역 국제표준화 협력 기반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2012년 여수에서는 기후변화, 자원고갈, 생태계 파괴 등 인류가 처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세계 박람회가 개최되는 것이다.

동기간 PASC 총회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중점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기술 표준화 정책” 등을 소개하고 아·태지역의 협력을 주도함으로써 녹색기술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참고로, PASC 회원국은 국제표준화기구(ISO) 이사회 7명(전체 20명), ISO 기술관리위원회(TMB) 8명(전체 14명) 및 기술분과위원회 사무국 292개(전체 695개)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SO 이사회, ISO/TMB, IEC 이사회 등에 임원으로 활동 중이다. 기술위원회 설립 및 신

규 국제표준안 검토 등에 관한 국제표준화 활동 및 정책 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기술표준원은 2012년 PASC 총회에 앞서 ISO, IEC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표준”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국내 산업계에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인식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한·중·일 국장급이 참여하는 표준화 협의체 및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 등 민·관 표준협력 기반을 토대로 동북아 표준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세계인정기구(ILAC/IAF)가 정한 “세계 인정의 날”을 맞아 국제 공인성적서의 Global Acceptance(국제적 수용)을 주제로 기술표준원이 6월 11일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ILAC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는 국제시험기관인정 협력체이고,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는 국제인정기구포럼이다.

기술표준원은 행사에서 의학(ISO 15189)과 소프트웨어 등 신수요 분야의 인정제도의 현황을 발표하고 한국인정기구(KOLAS) 사무국을 확대·개편하는 운영계획도 소개한다. ISO 15189는 의학시험기관의 품질 및 자격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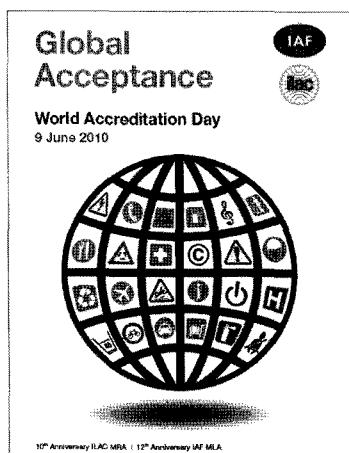
세계 인정의 날 행사는 글로벌 무역에서 각 국가의 국제 공인성적서의 국제적 수용을 확대하여 무역장

벽을 완화하고 국가간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ILAC 상호인정협정(MRA)으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54개국, 3만개 시험소의 공인성적서가 추가 또는 중복 시험 없이 국가 간에 통용되고 있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상호인정협정이다.

한편, 세계인정기구는 제3차 인정의 날을 계기로 각국의 환경, 안전, 보건 등 규제품목에 대해서도 국제 공인성적서의 상호인정을 한층 더 제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규제품목의 상호인정이 41%(2002년)에서 68%(2009년)로 꾸준히 제고되고 있다.

ILAC/IAF는 인정제도의 중요성 전파와 일반대중의 이해 증진을 위해 '07년 IAF/ILAC 총회 결의안에 따라 '08년부터 매년 6월 9일을 “세계인정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일치된 인정 규정 및 절차의 제공을 강조하였다.

2009년 세계인정의 날 테마는『역량(Competence)』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는 기관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관의 기술과

운영에 대한 역량이 인정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인정은 적합성평가기관(CABs)의 역량,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독립적이고도 권위있는 증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험, 검사 및 인증의 정확도와 신뢰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한다.

국제상호인정제도(MRA)의 목적은 국제표준(ISO/IEC)에 따라 조직, 품질시스템(업무절차 등), 시설 및 환경조건, 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시험·검사·교정기관 등을 평가하여 생산하는 시험결과의 공신력을 인정하여, 시험기관 성적서를 국가간에 중복 시험없이 인정하는 제도인 것이다.

한국인정기구(KOLAS)의 조직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92. 12월에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를 설립하였고, '00. 11월에 시험기관 ILAC-MRA 체결 하였으며, '01. 05월에 교정기관 ILAC-MRA 체결 하였으며, '07. 04월에 한국인정기구(KOLAS)로 개칭한 것이다.

